

**담당 :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 02)560-4434 ㅣ Mobile : 010-7680-8653 ㅣ E-mail : media@klpga.org**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우승자 인터뷰**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
| 2 | 기 간 | 2025년 6월 6일(금) ~ 6월 8일(일) |
| 3 | 장 소 | 성문안 [아웃(OUT) / 인(IN) 코스] |
| 4 | 주 최 | ㈜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스킨큐어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2억 원 (우승상금 2억 1,600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494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박민지, 정윤지, 이예원, 박현경, 홍정민, 김민선7, 방신실, 김민주, 박보겸  지한솔, 고지우, 이채은2, 정지효, 김시현, 송은아, 마다솜, 노승희, 황유민  조정민, 김서윤2, 오수민(A), 최정원(A), 홍수민(A)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  [2라운드] 11시 ~ 17시  [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FR 2언더파 70타,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66-68-70) 우승자 이가영**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426>

**[주요 기록]**

- 이가영 통산 3승 달성

\*2022 동부건설 ·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2024 롯데 오픈,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6위, 상금순위 3위 등극

- 2025시즌 세 번째, 역대 KLPGA투어 111번째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 이가영 연장 전적 2승 1패

\*2021 맥콜 ·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이가영 패(vs 김해림)

\*2024 롯데 오픈이가영 승(vs 윤이나, 최예림)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이가영 승(vs 김시현, 한진선)

**[우승 인터뷰(자료 제공=대회조직위원회)]**

**Q. 간단한 우승 소감, 연장 기분과 연장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A. 플레이 전 공동 스코어 선수들이 많아서 누가 할 지 모르겠다, 자기 스코어 제일 많이 줄이는 선수가 우승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첫 홀 부터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많이 떨면서 플레이 했는데 운 좋게 연장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연장에서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내 자신을 믿어야 될 거 같다 생각했고, 그걸 해내면서 잘 칠 수 있었다.

**Q. 18번 홀 정규 라운드 빨리 끝나고 기다렸는데 몸 풀거나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것?**

A. 전혀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파5에서 진선 언니가 충분히 파로 끝내지 않을까 생각했다.

**Q. 연장 세컨드샷 아이언 잡았는데, 핀 가까이 붙이는 전략이었나? 정확한 코스공략은 어떻게 세웠는지?**

A. 정규 18번 홀에서 컨트롤 샷을 했는데 공이 잘 서지 않았다. 그래서 연장에서는 확실한 풀 샷 거리를 남기자고 캐디 오빠와 얘기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장에서는 58도 풀샷, 두 번째 연장에서는 52도 풀 샷 거리를 남겨서 플레이했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

**Q. 앞서 말 한 것처럼 구질 변화가 선수로서 예민하고 중요한데, 어떤 구질에서 변경했고 왜 바꿨는지?**

A. 구질을 일부러 바꾸진 않았고, 원래 드로우 구질이었는데 스윙이 좋아지면서 구질이 펴졌다. 그러다보니 페이드 구질까지도 나오더라. 그래서 샷에 확신이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다시 드로우를 치려 노력했다. 그랬더니 찬스가 생기고 샷에 확신이 생겼다.

**Q. 우승 원동력은 무엇인가?**

A. 원동력은 나 자신이다. 내가 잘 해야 우승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스코어를 생각하지 않고 내 플레이만 생각했다.

**Q. 연장 첫 경기에서 한진선의 10미터 버디 퍼트 보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A. 와 저게 들어갔구나 생각했는데 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집중하려 했고, 넣고 다시 연장을 가자는 생각을 했다.

**Q. 공동2위로 마쳤는데 연장의 기대를 했나?**

A. 연장 기대는 안했지만, 앞 선 선수의 샷을 보고 혹시 연장 가려나 살짝 생각을 했다.

**Q. 이번 대회 아이언 샷이 좋았는데?**

A. 아이언 샷을 자신 있어 하는 편이다. 구질이 바뀌었을 때 불안감이 들긴 했지만, 다시 원래 드로우 샷을 생각하고 치면서 좋아진 것 같다.

**Q. 반대로 이번 대회 퍼트가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A. 그렇다. 이번주 샷은 좋았지만 퍼트가 아쉬웠다. 어제와 오늘 퍼트가 잘 안 떨어져서 마음 고생했다.

**Q. 짧아진 우승 주기에 대한 본인의 발전된 부분과 자신감이 생긴 점?**

A. 투어 생활 하다 보니 연륜은 아니지만 투어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이 초반보다 편해져서 잘 되는 것 같다.

**Q. 항상 필드에서 경기 때 담담해 보이는데 마인드컨트롤 방법? 송곳같은 샷의 비결은? 아마추어에게 아이언샷 도움될만한 것?**

A. 차분하게 치려고 하는 편이고 최대한 화를 안 내려 한다. 화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좋았던 기억을 가지려 하는 편이다, 아이언 샷은 머리 들지 말고 일정한 리듬으로 하는 것이 아마추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자기만의 리듬이 중요하다.

**Q. 연장으로 우승이 있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직전 대회 탑10 이었는데 기대했는지?**

A. 대회 전 우승 기대는 안 했다. 샷이 좋아져서 기분은 좋았지만 기대는 안 했다. 연장전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됐다. 연장 세 번째였는데 첫 번째 연장은 많이 떨렸고, 두 번째 연장부터는 조금 더 편했다. 한 홀에서 승부가 나다 보니 그 부분이 나에게 더 잘 맞는 것 같다.

**Q. 한 홀에서 승부를 보는 게 잘 맞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맞다고 하는 건지?**

A. 확률상 한 홀 승부가 높은 것 같고, 모두 긴장은 하겠지만 연장전 들어갈 때 기분이 조금 더 당찬 기분이다. 연장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 마음이다.

**Q. 남은 메이저 대회에 대한 임하는 목표? 계획?**

A. 이제 막 우승을 해서 계획은 없지만 올 시즌 2승 생각을 하고 있다. 계속 승부를 쌓는 것이 목표이다.